

동아시아의 인구사상: 홍량길과 맬서스의 비교*

박상태**

오늘날 전 세계 학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구 학문의 기초는 그리스와 로마 문명인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결과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포함하는 아랍세계의 훌륭한 업적과, 인도대륙의 심오한 사상, 그리고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탁월한 업적이 등한시되거나 도외시되어 왔다. 인구에 관한 사상과 이론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는 우리가 간과(看過)한 과거 인구사상 중 동아시아 부분을 중국학자들을 중심으로 고대, 중세, 근세 등 시기로 나누어 유럽 학자들과의 비교를 통해 재조명해 보았다.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에서는 고대로부터 과잉 및 과소 인구에 대한 우려가 자주 거론되었다. 춘추시대 인구에 대한 주요 관심은 인구와 자원과의 균형관계였으며 인구가 국부의 원천임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과소인구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과잉인구에 대한 단점도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어 적정인구와 근대 맬서스주의의 기초는 이미 고대 춘추전국시대에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서양고대 그리스와 로마시기의 인구 사상의 발전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적정인구론과 로마시기 팽창주의적 인구증가 장려책으로 대표된다.

천년이란 장기간의 중세 시기 유럽의 발전은 정체되어있었으며, 동아시아의 발전 역시 부진했으나 아랍세계의 발전은 주목할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세에 들어와 유럽 특히 서구에서는 눈부신 학문적 발전을 이룩한데 비해 동아시아의 발전은 매우 저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맬서스가 그의 인구이론을 발표하기 수년전 중국의 홍량길은 불완전하나마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율의 문제를 논하고, 인구증가에 대한 규제로서 맬서스의 적극적 규제 및 궁극적 규제에 해당하는 천지조제법과, 소극적 규제 및 즉각적 규제에 해당되는 군상조제법을 들고 있다. 특히 그가 상대적 과잉인구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고대 탁월한 동아시아의 학자들과 근세 맬서스 직전 홍량길과 같은 학자도 있었으나 동아시아에서의 학문발전은 근세 이후 서양에 비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부진하게 된 이유를 학문내적 요인과 학문외적 요인으로 나누어 검토했다.

핵심단어: 다산론, 소산론, 과잉인구, 적정인구, 적극적규제(천지조제법), 소극적규제(군상조제법)

* 이 연구는 2001년도 서강대학교 교내연구비 보조를 받아 수행한 연구임.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시고 자료해석에 큰 도움을 주신 서강대 철학과 鄭仁在 교수님, 崔珍皙 교수님, 그리고 사학과 卞秉漢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3년도 중국체류 중 많은 도움을 주신 北京 清華大學 彭迎喜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I. 서론 - 연구목적 및 방법

인구현상은 자연환경의 제약과 인간의 생물학적 제약 등 두 가지의 인간 의지와 관계없는 변수의 한계 내에서 인간행위에 의해 이룩되는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발전된 결과이다. 즉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신체 외적 자연조건과 신체 내적 요인인 생물학적 진화요인을 제외한 사회적 조건들의 상관관계에 의해 인구의 구조와 변화과정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구의 구조와 변화과정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경제적 조건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본 연구의 첫째 목표는 인구에 관한 관점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추리할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회경제적 변화가 인구에 대한 관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밝힐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구에 관한 사상은 장기간을 놓고 보면 시계추와 같아 한때는 과소 인구와 낮은 증가율을 걱정하다가 다른 시기에는 같은 지역에서 과잉인구와 높은 증가율을 염려한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수천 년 간 인구사상은 매우 순환론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의 이론적 전제는 순환론적 진화론(Cyclical Evolutionism)이다. 왜냐하면 과소 또는 과잉 여부에 대한 관점은 순환적이거나 다른 한편 세계인구가 60억을 넘어선 적은 인류역사상 한번도 없었으며 도시인구가 전 세계인구의 반을 넘어선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 근대화의 맹아기라고 할 수 있는 근세조선 말기에 이르러 토지-인구의 압박 즉 식량 생산량과 인구수와의 불균형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이것은 17세기 전반 임진왜란(1592-1598)과 병자호란(1636-1637)으로 감소했던 인구가 그 후 숙종, 영조, 정조 시기(1675-1800)를 거치며 급격히 증가한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순조 시기(1801-1834) 수많은 기근과 민란은 토지에 대한 인구압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10년 이후 일본의 팽창정책으로 인구압박 현상은 관심사에서 밀려났다가 2차대전 후 한국전쟁을 거쳐 급격한 인구증가는 가족계획사업으로 증가율의 감소를 가져왔으나 1990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 현재 우리는 다시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둘째, 그리스와 로마를 종주로 여기는 서구의 학문이 오늘날의 세계 학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결과 이집트와 페르시

아를 포함하는 아랍세계의 찬란한 학문적 업적과, 인도 대륙의 심오한 사상,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탁월한 사상적 발전에 의한 학문적 업적이 등한 시되거나 아예 도외시되고 있다. 서양에서 그리스와 로마 시기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듯이 동아시아에서도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들의 찬란한 학문적 발전을 이룩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제자백가 사상가들의 업적 중 인구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요약하고 이를 시기별로 서양 사상가들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다음 중세와 근세초기 중국 사상가들의 인구에 관한 관점을 서양 사상가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과거 우리나라 학자들에 대한 연구가 간혹 있었으나(朴商台, 1984)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비교는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다음 기회로 미룬다.

셋째, 인구연구에 가장 큰 업적을 이룩한 학자로 공인되는 맬서스(1766-1834)의 인구 사상을 맬서스 보다 20년 앞서 출생한 중국의 홍양길(洪亮吉, 1746-1804)의 사상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홍양길은 20세기 중반부터 중국학자들에 의해 유럽과 미주에 소개되었으나 그 내용은 인구학적 관점에서가 아닌 경제학 특히 고전경제학적 관점에서 소개된 것이었으므로 여기서는 인구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그의 업적을 맬서스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위의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해 과거 문헌자료를 이용했으며 본 연구에서의 역사적인 시대구분은 역년(曆年)적인 구분에 의한 수밖에 없었으며 서양의 경우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세로 나누어 연구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비교하는 뜻에서 이에 상응하는 중국의 시기를 맞추어 보고 동시에 중국의 특출한 사상가를 중심으로 그 시기 서양 사상가를 비교하는 방식을 병행했다. 우리가 소개하지 못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당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많은 학자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우선 여기서는 지금까지 사회과학의 각 분야에서 주목을 받아온 일부 학자들을 위주로 비교해 보았다.

II. 고대

서양에서 역사학자들에 의해 규정된 고대는 로마제국이 멸망한 시기까지를 말하므로 그 시기는 매우 장구하다. 동아시아에서의 이 시기는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BC 770 - BC 221)와 진한(秦漢)을 거쳐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BC 221 -AD 581)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남아있는 기록에는 田制를 비롯

한 인구와 관련된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전해오고 있으나 여기서는 이들 중 우리의 논의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8명 학자들의 주장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대 동아시아

고대 중국의 인구문제에 대한 주류추세는 인구증가를 장려하는 것이었으며, 인구의 증감은 국가의 성쇠를 가늠하는 표준이 되었다. 고대 통치계급으로서 인구증가를 장려하지 않은 경우가 없었으며 그 주된 이유는 병력충원과 세금부과를 위한 것이었다. 주의 선왕(周宣王: BC 827-782)이 태원(太原)지방에서 인구를 헤아렸다(料民)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군사목적의 인구조사였다(胡寄窓, 1998; 82).

춘추전국시대(BC 722-221)의 특징은 춘추시대(BC 722-481)보다는 전국시대(BC 403-221)에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지향하는 군소 제후들에 의해 인구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노자나 공자 등 춘추시대의 학자들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적극적인 다산 장려 견해가 전국시대에 풍미한다.

가. 노자(老子 BC 604-531): 중국에서 인구의 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힌 최초의 학자는 노자(老子 BC 604-531)라고 볼 수 있다. 그는 그의 도덕경(道德經) 제 80장에서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주장한다. 이것은 국가의 규모를 작게 하고 백성의 수를 적게 유지하면 국민복지(民福)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 즉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을 낮춤으로써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 도교적 사상의 일단이지만 노자는 집중과 통일 그리고 확장보다는 분산과 해체 속의 자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최진석, 2001: 541).

나. 공자(孔丘 BC 551-479): 공자는 인구의 다과에 대한 뚜렷한 관점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간접적으로 인구가 많은 것을 선호하고 출산장려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추리할 수 있다.

<論語 子路篇 第九章 子適衛 冉有僕 子曰 庶矣哉 冉有曰 既庶矣 又何加焉? 曰 富之 曰 既 富矣 又何加焉? 曰 教之>

공자가 위나라에 갈 때 염유가 수레를 몰았다. 공자가 백성들이 번성하구나 하자, 염유가 이렇듯 백성들이 많으니 더욱 보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공자가 백성들을 부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했다. 부한 다음에는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張基權, 1970: 322).

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 유학자들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족, 혼인, 출산

등에 대해 인구 증가를 장려하는 다산론적 견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다. 맹자(孟軻 BC 372-289): 맹자(孟子)는 공자와 더불어 한 나라의 인구가 많고 물산이 풍부한 것을 훌륭하게 여겼고 후대의 유가사상가들의 대부분은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이었다.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양혜왕이 말하기를, “과인은 나라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내에 흉년이 들면 그 백성을 하동에 옮기고 하동의 곡식을 하내에 옮기며, 하동에 흉년이 들면 역시 그렇게 합니다. 이웃나라의 정치를 살펴보면 과인이 마음 쓰는 것 같이 하는 자가 없는데, 이웃나라의 백성은 더 줄지 않고, 과인의 백성은 더 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孟子 梁惠王 章句上 王無罪歲章; 隣國之民 不可少, 寡人之民 不加多, 何也?)” 이에 대해 맹자는 저 유명한 五十步百步의 예를 들며 패도가 아닌 왕도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車柱環, 1970: 81-89).

라. 묵자(墨翟 BC 468-376): 묵자는 중국에서 최초로 인구문제를 거론한 사상가라고 부를만하다. 묵자가 생존했던 시기는 전국시대 초기로서 당시 월의 왕(越王) 구천(句踐)이 강력한 인구증가 정책을 시행했다. 구천은 오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전한 것을 설욕하기 위해 그리고 월나라를 복구하기 위해 인구 증가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묵자의 인구사상은 위와 같은 군사적 목적이 아니었다. 전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생산 발전을 위해 인구증가가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그의 주요 논지는 인구의 증가는 재부의 증가보다 이룩하기가 훨씬 느리고 어렵다는 것이었다. 당시 농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묵자는 토지와 인구수의 불균형을 들었다. 즉 땅은 많은데 인구가 부족함을 지적한 것이다. 무엇이 이같은 현상의 원인인가. 묵자는 봉건제후들 간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무거운 조세부담으로 백성들이 빈곤에 빠지게 된 것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인구-토지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그는 仁政을 주장한다. 어진 정치가 바로 국부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여러 가지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중 중요한 것은 1. 조혼의 장려(남 20세: 여 15세). 2. 축첩금지(독신남자수 감소). 3. 전쟁금지(사망을 저하) 4. 중세(重稅) 금지. 5. 단상박장(短喪薄葬 - 상기를 단축하고 殉葬을 금함)등을 들고 있다(胡寄窓, 1998: 82-85).

마. 상앙(商鞅 BC 390 - 338): 춘추시대 이후 각 학파의 사상가들은 모두 자국의 인구증가를 추구했으나 전국시대 중기 이후부터 점차로 인구와 토지간의 균형(비례적)문제를 중시하는 견해가 자주 나온다. 상앙은 민승기지(民勝其地)와 지승기민(地勝其民)론을 주장하고 백성의 숫자가 땅의 크기를 앞지를 경우

개간에 힘써야 하고, 땅(농지)의 크기가 백성의 숫자보다 클 경우 인구가입에 적극적(내민-徠民-招民事상이라고도 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상앙이 거주한 진(秦)나라의 경우 지승기민의 경우로서 그는 전국 인구의 출생과 사망을 조사하여 등록(등기)하고 성인남녀 및 노약자의 수를 파악하려고 시도한 최초의 인물이다. 또한 자연증가를 기다리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입-인구가입을 장려할 것을 주장했다 (胡寄窓, 1998: 114).

바. 관자(管子 BC 300?): 관자는 관중(管仲, BC ?-BC 645)을 일컫는다. 춘추시대 제나라 환공을 도와 강력한 패자(覇者)로 만든 재상으로 “관자”를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자를 관중의 저술로 받아들이는 학자는 드물며 400여년 후인 기원전 BC 200-300년경 후인의 저술로 믿고 있다.

위의 상앙과 더불어 관자는 인구와 토지간의 비를 중심으로 인구의 과소 과잉 여부를 가름하고 있다. 즉 그는 부민정치를 강력하게 주장한 사상가로서 인구토지 비율에 대한 관심을 중시했다. 그는 지만(地滿)과 인만(人滿)이란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하고 있다. 지만은 과소인구(under-population)를 말하는 것으로서 땅은 넓으면서 천명(天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을 의미하고, 인만은 과잉인구(over-population)를 말하는 것으로서 인구가 많으나 땅이 적어 천명을 수행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과잉인구의 폐해를 말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특히 그는 목민(牧民)의 도로써 “창고에 곡식이 충분할 때 예절을 알고 의식이 충족돼야 영욕을 구분한다(倉廩實則知禮節, 衣食足則知榮辱)”고 주장했다 (胡寄窓, 1998: 133).

사. 한비(韓非子 B.C. 280-233): 전국시대 말기 한비는 인구가 많은 것이 재난의 근원이 된다고 했다. 고대가 인구는 적은데 재화가 많았던 시기였다면 전국시대는 인구는 많은데 재화가 적은 시기라 하여 인구와 재화의 관계에서 인구 쪽이 많은 것을 혐오하는 관점을 최초로 제시하여 목자와 반대되는 견해를 보여준 것이다.

한비 이전에 인구문제를 제기한 사상가들은 대체로 인구증가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토지에 대비되는 인구문제를 주요 관심사로 삼고 있었다. 한비는 이와 다른 견해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놀랍게도 당시의 인구가 너무 많다고 본 것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와는 달리 그는 “요즘사람들은 아들 5명도 많다고 보지 않는다. 아들 5명이 각각 5명씩 아들을 낳으면 조부 생전에 손자가 25명이 된다. 이로써 사람은 많은데 재화는 적어지게 된다”고 했다 (韓非子, 五囊篇). 멜서스의 기하급수적 인구증가를 세계최초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구와 토지와와의 대비 관계에 대해서는 春秋時代 말기부터 수많은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다. 한비는 토지란 요소를 재화란 개념 안에 포함시켜 인구와 토지란 한정된 관계보다는 넓은 관계로 확대해서 본 것이다. 이것은 인구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예전엔 남자가 밭 갈지 않아도 초목의 열매가 풍부하여 먹기에 충분했고, 여자가 옷을 짜지 않아도 동물들의 가죽이 풍부해서 입기에 충분했다. 힘써 노력하지 않아도 부양하기에 족했고 사람 수가 적어 재화가 남아 백성들이 다투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戰國時代 말기를 말함) 사람 수는 많으나 재화가 적어 힘써 일해도 부양하기 어려운 고로 백성들이 다투게 되어 상을 더 주고 벌을 더 가해도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胡寄窓, 1998: 124-125).

위와 같은 그의 논조는 여러 상황에 대한 변수를 고려한 깊은 연구나 정확한 측정은 아니더라도 그가 인구와 재화간의 관계를 가지고 사회적 혼란의 근원을 분석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주목된다.

아. 서간(徐幹 AD 171-218): 秦漢시기(BC 221-AD 220) 인구에 관한 뚜렷한 견해를 밝힌 학자는 춘추전국시대에 비해 매우 적으나 그 중 서간을 대표적인 학자로 들 수 있다. 서간은 대대로 벼슬한 집안의 자제였으나 그는 당시 무리지어 당파를 만들고 이름을 날리고 권력을 잡는 것을 저속하게 보고 조용히 자신을 지키면서 <中論> 20여 편을 저술했다. 그중 그는 인구수에 대해서만 한편의 논문을 저술했다.

역사적 인구 기록에 의하면 서기 2세기 상반기 서간이 생존했던 당시 중국의 인구는 약 6천만 내외로 증가했고 이 숫자는 14세기 중엽까지 기록된 중국 인구 중 가장 많은 수치였다. 이것이 아마도 서간을 비롯한 당시 중국 학자들의 인구 사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학자들 중 일부는 “인구수가 적으면 재물이 족하게 된다”고 하여 인구가 많은 것 보다 적은 것을 선호했다. 이런 관점은 선진(先秦)시대 법가(法家) 사상가인 한비자의 관점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

인구조사를 정무(政務)의 가장 기본적인 관장사항으로 여기고 제반 정치 경제의 정책 및 조치는 모두 그 나라의 인구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수는 모든 사무의 출처가 되므로 바른 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전지(田地)를 나누어주는 것, 공부(貢賦)를 정하는 것, 기용(器用)을 만드는 것, 식록(食祿)의 제정, 역(役)의 배분과 징발, 등은 모두 인구수에 기초하여 마련된다. 국가의 법전이나 가정의 법도를 제정하는 것, 오례(五禮)의 실시, 구형(九刑)의 집행 등은 모두 백성의 숫자로부터 찾아야한다”고 했다.

인구관리를 잘못하면, 호구(戶口)가 누락되고, 이에 따라 역(役)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버려진 사람들과 유랑자들이 생긴다. 여기에 모든 부패가 생겨 엄형(嚴刑)으로 다스려도 바로 잡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胡寄窓, 1998: 265-266).

요약하면 서간의 인구 사상은 인구가 정치 경제 정책의 기본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사상가들은 인구를 다른 정치 경제 사회 현상과 관계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나 그는 인구를 독립된 편장으로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으로서 인구를 독립변수로 보았음을 의미하며 맬서스가 최초로 이 작업을 했기에 인구론의 비조라 일컫게 되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만 하다.

2. 고대 서양

서양의 고대시기인 그리스의 초기 사상가들은 인구성장을 지지했으나 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인구의 규제가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의 인구론은 복잡한 이론보다는 인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즉 그들은 당시 도시국가 체제에 맞추어 인구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에 맞는 적정인구규모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인구 적정 규모는 경제적인 면보다는 국가안보나 정부의 유지란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주요 관심사는 자급자족할 수 있을 만큼의 시민 수와 그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영토를 확보하는데 있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지나치게 많은 인구는 투표관리 등 민주 헌정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플라톤(BC 427-347)은 도시국가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적합한 인구규모를 그의 『법률론(Law)』에서 5,040명이라고 했다. 이는 남자 시민권 소유자의 수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며 여자와 노약자 그리고 노예를 포함하면 6만-8만 명을 이상적 도시규모로 본 것이다. 플라톤은 실제 인구규모는 항상 이상적인 수에 미달하거나 초과되므로 바람직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과소할 경우 젊은이들을 타이르거나 꾸짖어서라도 출생율을 높이도록 하고 이도 어려우면 타지에서 이입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가 이상적인 수준을 초과할 경우 자녀가 많은 사람들은 산아를 제한하고 식민지를 건설함으로써 과잉인구를 분산 흡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플라톤이 이상적 유토피아적 철학자였던 점을 감안하면 수긍할 수 있는 견해이다.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는 플라톤의 철학적 전통을 이어받았으나 그 학문적 성향은 플라톤과는 다른 학자로서 플라톤이 이상주의적 학설을 주장한데 반해 논리적 과학적 학설을 정립한 철학자였다. 그에 의하면 한 도시국가의 인구규모는 국민들이 자유롭고 안일한 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치학(Politica)』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토지나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없으므로 인구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빈곤과 사회악이 만연하게 되며 과잉인구의 결과인 사회악은 영유아 유기나 유산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그리스에서는 과잉인구의 공포로 출생률이 감소하고 출생률 증가를 위한 정책도 시행되었으나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명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UN, 1973: 33-35).

작은 도시국가적 관점을 가지고 인구현상을 다룬 그리스 사상가들과는 달리 로마에서는 인구를 대제국적 관점에서 다루고 인구증가의 단점보다는 오히려 군사적 목적 등의 이점을 강조했다. 로마는 건국초기부터 출산예찬론이 지배적이었으며 군사적 정치적 세력 확장을 위해 다산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었다. 에니우스(Ennius)나 바로(Varro) 등 대부분의 초기 사상가들은 혼인의 제일차적 기능은 국가를 위한 시민의 생산이라고 주장했으며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인구감소를 염려한 나머지 출산을 장려하는 법제를 정비했다. 키케로(Cicero, BC 106-43)는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일처제를 주장하고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독신을 금지하고 독신자에게는 혹독한 세금을 징수하여 독신을 강력히 제재했다(Sauvy, 1979: 349-358).

유대교와 가톨릭 사상: 유대교의 성전(聖典)인 <구약성서(舊約聖書)>¹⁾에서도 출산과 자녀번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불임을 하나님께서 내린 가장 큰 불행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구약의 전통은 가톨릭으로 이어져 내려오지만 신약성서(新約聖書)를 중시하는 기독교 전반의 저술가들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보다는 도덕적-윤리적 차원으로 국한시켜 인구를 논의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리 상 출산에 대한 양면적인 논리가 전개된다. 한편으로는 일부다처, 이혼, 유산, 영아살해, 소년유기 등을 거부하면서 출산예찬론을 펴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처녀성(성모 마리아의 순결 등)을 찬양하고 재혼

1)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구에 관한 기록은 해석 여하에 따라 무수히 많은 내용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직접적으로 인구수의 많고 적음에 대한 견해는 몇 가지로 제한되므로 대표적인 두 구절을 들면 다음과 같다.

잠언 (14:28) :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위대함을 말하며 그 수가 적으면 임금은 미약한 존재가 된다.

창세기 (13:6) : 그 지방은 그들이 함께 살만한 곳이 못되었다. 땅이 그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기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에는 잦은 싸움이 있었다.

을 용인하지 않는 가톨릭 전통을 남겼다. 특히 독신 수도의 중요성은 매우 자주 나오는 구교적 가르침이 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구교의 독신주의 전통을 경제적 이유, 즉 잉여인구의 예방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당시 서력기원 후 중세말기까지의 보편적으로 높은 사망률과 기근, 역질, 전쟁 등으로 인한 끊임없는 인구감소의 위협을 고려해 보면 독신과 재혼의 금지 등 출산에 부정적인 요소들은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규제로 보이며 인공적 산아제한을 배격하는 구교적 전통은 교리상의 이유와 더불어 인구감소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朴商台, 1986: 18-20).

3. 고대 요약 및 비교

동아시아의 춘추시대는 고대 그리스시기와 더불어 비교적 이성(理性)을 중시한 시대였다. 당시 인구규모나 증가 혹은 분포에 대한 관점들은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그리스시기의 시민사회의 형성은 역사상 초기 민주주의 형태를 갖춘 시기였으며 춘추시대의 제자백가의 찬란한 학문적 발전도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보편적 연구를 토대로 이룩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의 이성이나 보편적 특성을 중시했던 시기와 달리 중국의 전국시대와 로마시기로 이행하면서 유토피아(utopia) 사회에서 주장되고 수용되었던 인구에 관한 관점은 설 땅을 잃게 되고 무력이 지배하는 비이성적인 사회의 냉엄하고 무자비한 관점과 정책이 시행된다.

앞서 소개한 춘추전국시대의 노자, 공자, 묵자, 맹자 등은 이상적 다산론(多産論-pronatalism)을 주장한 데 반하여 소산론(少産論-antinatalism)을 주장한 학자로서 상앙, 관자, 한비 및 서간 등이 있었다. 전국시대 상앙(商鞅)은 민승기지(民勝其地)와 지승기민(地勝其民)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전자는 땅은 좁은데 인구가 많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후자는 땅은 넓으나 인구가 희소함을 일컫는 말이다. 관자(管子)는 지만(地滿)과 인만(人滿)이란 두 개의 개념을 비교하고 있다. 지만은 과소인구(under-population)를 말하는 것으로서 땅은 넓으면서 천명(天命)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을 의미하고, 인만은 과잉인구(over-population)를 말하는 것으로서 인구가 많으나 땅이 적어 천명을 수행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과잉인구의 폐해를 말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이와 같이 상앙과 관자는 인구와 토지간의 대비를 중심으로 인구의 과소, 과잉 여부를 논한 것이다. 전국시대 말기 한비(韓非子)는 인구가 많은 것이 재난의 근원이 된다고 했다. 고대가 인구는 적는데 재화가 많았던 시기였다면 전국시대는

인구는 많은데 재화가 적은 시기라 하여 인구와 재화의 관계에서 인구 쪽이 많은 것을 혐오하는 관점을 최초로 제시하여 목자 등과 반대되는 견해를 보여준 것이다. 그 후 한(漢) 시대 서간은 인구와 인구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서 돋보인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과잉 인구에 대한 우려가 자주 나온다. 가장 시기적으로 앞선 노자와 유학을 대표하는 공자와 맹자는 인구와 환경(자원)과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었다. 목자는 인구증가와 감소에 대한 방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의 과잉인구론은 이미 춘추전국시대에 그 기초가 이룩된 것이다. 특히 상앙, 관자, 한비, 서간 등 전국시대와 한시대의 학자들은 과잉인구에 대한 단점을 깊이 천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III. 중세 (6세기-15세기: 500-1499)

중세의 규정은 매우 애매하지만 서양에서는 대체로 로마제국이 멸망한 때부터 르네상스까지를 일컫는다. 동아시아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중국왕조는 隋, 唐, 宋, 元 시기로 볼 수 있다. 동서양 모두 찬란했던 고대 학술 발전에 비해 중세 시기 (6세기 중반-16세기 중반까지)의 학술발전은 매우 정체된 시기였다. 이 시기 주목될만한 학자는 동서양 합쳐 4-5명에 불과하다.

1. 중세 동아시아

가. 소식(蘇軾 1037-1101): 소식의 호는 동파(東坡), 송시기에 가장 유명한 문장가 특히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적벽부(赤壁賦)를 모르고 중국문학을 논할 수 없다고 전해오는 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학자로서도 문학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란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왕안석(王安石)의 신법(新法)을 반대하고 유가의 주장을 답습한 사람이다. 인구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그는 가우 연풍(嘉祐 年豐, 宋 仁宗 1056-1063)년간에 올린 제도적 정책 건의 중에서 良民을 안정시키는 주요 방책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토지는 충분하여 중국의 백성을 먹이고도 남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하여 백성들의 빈곤원인을 분석하고 그 이유를 인구와 토지의 분포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전제(井田制)가 폐지된 이후 사람들의 모이고 흩어짐이 무상하여 (인구이동의 원칙이 없다는 뜻) 좋으면 무리가 모여 시(市)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 천하에는 늘 나머지가 있어도 백성들의 용도에는 부족함이 있게 된다.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이 이와 같은 고르지 못한 인구 분포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적정한 인구와 토지의 배분을 위해서는 개간되어 방치된 빈 토지와 개간할 토지로의 이동이 필요하다. 그는 일부 사대부들의 형양(荊襄) 지구로의 이동을 주장하고 일반 백성들 중 형양 지구로의 이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주비용과 식량을 제공하고 전지의 분배, 경작기구의 대여, 조세부담의 경감 등을 요구한다. 개간가능 지역으로의 이동은 흔히 보아온 것이지만 봉건 사대부를 참가시키자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주장이었다.

대부분의 인구문제에 대한 사상가들은 인구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현상을 국가 흥망성쇠의 표지로 삼았다. 그러나 소식은 “예전엔 민수(民數)의 다과로서 국가의 빈부 기준을 삼았다. 그러나 소식이 보기에 당시 백성의 숫자는 요역(徭役)의 동원에 이용될 뿐 국가의 빈부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난의 근원이 되고 있다. 생산하는 사람은 적고 소비하는 사람만 많다면 이것은 오히려 여러 폐단을 생기게 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소식은 인구가 많은 것이 부의 축적에 이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앙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왜냐하면 삶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 이외에 먹기만 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이로 인해 백폐(百弊)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胡寄窓, 1998: 351-353).

소식이전 대체로 인구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두 생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러기에 인구수의 다과(多寡)는 한 나라의 빈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식은 처음으로 비생산인구에 큰 관심을 가졌던 학자로서 이들 비생산적 인구가 국가 경제 번영에는 오히려 위협이 된다고 보고, 인구수와 국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이것은 인구분석의 역사상 새로운 관점을 보태준 것으로 특기할 만 하다.

나. 마단림(馬端林 1254-1313): 그의 字는 귀여(貴與), 요주의 낙평(饒州 樂平) 사람이다. 宋과 元의 교체기에 가장 걸출했던 학자였다. 유일한 저서인 문헌통고(文獻通考)에서 그는 호구고(戶口考)를 짓고 중국역대 호구에 대한 저술들을 찾아 호구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여 후인들에게 훌륭한 참고자료를 마련해 주었다.

그는 인구에 관한 특수한 견해를 제시했다. 당시 인구의 크기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관점이었다. 北宋 시대 소

식(蘇軾)을 제외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학자는 없었다. 마단립은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했다. 그에 의하면, 예전에는 호구수가 적었으나 모두 재주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후세에 올수록 인구수는 많아졌으나 게으르고 나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백성 수의 다과(多寡)가 국가의 성쇠를 좌우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후대의 인구가 전대의 인구에 비해 나태하다는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는 인구의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한 최초의 학자라 할 수 있다. 즉 그는 인구 개념에 새로운 내용을 보충한 것이다 (胡寄窓, 1998: 386).

다. 임훈(林勛 1127-1279): 임훈은 옛 정전법을 되살릴 것을 주장했다. 이것은 단지 복고주의적이고 감상적인 차원에서 주장이 아니었다. 그는 당시 농민이 가난하게 되고 실직자가 많아지고 군 병력은 많으나 사병들이 달아나 도적처럼 된 것은 토지분배상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는 개량된 정전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조세를 노역이나 지조(地租)가 아닌 실물과 화폐로 대납할 것을 주장했다. 정전제를 주장하는 학자는 빈번히 나오지만 조세를 화폐로 납부해야 된다는 학자는 임훈이 처음이었다.

2. 중세 서양

흔히 서양의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한다. 이 시기의 인구에 관한 언급들은 사회경제적 문제와는 거리가 먼 것들뿐이며 국가, 민족, 인종 등과 더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개념이었기에 인구 증감에 관한 정치적 관심도 희박했다. 다만 잦은 전쟁에 의한 폐허와 그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하게 되어 인구 증가 자체를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고 하느님의 은총의 결과라고 믿었다. 이런 관점은 오랜 동안 계속되어 최근까지도 서양에서도 자녀수가 많은 것을 다복한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관념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특히 서양 중세 봉건주의 시대 지배계급은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즉 피지배계급의 노동력의 감소를 두려워하고 노동력의 증가를 환영했으리라는 추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이 고대에 자주 논의되었던 인구문제는 봉건주의 종말 후에야 거론되기 시작한다 (Sauvy, 1979).

초기 이슬람교 저술가들의 인구에 관한 관점은 유대교나 기독교사상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문발전이 찬란했던 14세기 아랍세계 학자들 중 이븐 할둔(Ibn Khaldun)은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발전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인구에 관한 관점을 요약해 보면, 첫째, 높은 인구밀도

를 갖고 있는 사회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군사 및 정치적 안보를 유지할 수 있고, 분업이 발전되어 생활수준의 향상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근세 정치경제학자들의 주장보다 200여 년 이상 앞서고 있다. 다음, 경제적 기복(현대용어로 경기변동)으로 인해 한 국가는 번영과 쇠퇴를 주기적으로 맞게 된다는 순환론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즉 한 국가 또는 사회(문명 단위로 보고 있음)가 번영하게 되면 출산력이 증가하고 사망률이 감소하여 인구증가를 촉진하게 된다. 이와 같은 번영기가 오랜 동안 지속되면 사회 성원들이 사치스럽게 되고 조세부담이 커짐과 동시에 국가나 사회가 쇠퇴하게 되어 출산율이 저하되고 사망률도 증가하여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Rosenthal, 1962).

할둔의 주장이 서양 근세 정치경제학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자세히 연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는 인구와 사회와의 관계를 매우 체계적으로 탐구하여 현대적 이론에 비추어 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업적을 남기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3. 중세 요약 및 비교

고대부터의 기존 사상가들의 업적을 인용하지 않아 서로 연관이 없는 듯한 논의가 계속해서 나온 것은 동서양 모두 비슷하다. 이들은 모두 대체로 독자적인 논의라고 보기보다는 과거 업적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아시아에서의 논의도 고대 제자백가의 사상적 업적을 기본으로 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천년이란 장기간의 중세를 통해 동서양에서 모두 지배적이었던 사상은 상식이 된 것으로서 인구는 노동력이며 동시에 군사력이기에 국력 그 자체라고 본 것이다. 이런 인식은 역사시기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된 관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구에 관한 문제제기는 국가에 따라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상황적 제약에 반응하고 있었다. 전쟁의 위협 아래서는 수적 우세를 바람직하게 보았으며, 생활필수품이 부족한 시기에는 소비자가 적기를 바랐다.

IV. 근세

서구에서 르네상스라 일컫는 15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의 3백년간은 인류역사상 짧은 시기에 불과하나 크나큰 변혁을 겪은 시기였다. 민족국가의 출현, 과학적 발명과 신대륙의 발견, 점진적인 봉건제도의 해체, 초기자본주의의 발달과 무역의 신장 등 산업혁명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인구에 대한 사상도 다양하게 되고 수많은 관점을 통한 전례 없는 학문적 발전을 보여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학문발전은 매우 부진했다. 서양에서는 맬서스 이전까지 셀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인구에 대해 논의를 전개한 데 비해 동아시아에서는 홍량길 이전까지는 3-4명의 학자만이 인구에 관해 직접적인 논의를 했을 뿐이다.

1. 근세 동아시아

인구에 관한 관점에 있어 서광계(徐光啓, 1562-1633)는 특기할만한 점이 있다. 당시 식자들 간에는 예전엔 인구가 많았으나 당시 인구가 희소해졌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인구는 대체로 30년에 배가하는데 큰 변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감소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일시적인 기복은 있을 수 있으나 오랜 기간을 놓고 보면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음을 논증하고 있으며 또한 증가율이란 개념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胡寄窓, 1998: 418-419).

그후 명청교체(明清交替) 시기 왕부지(王夫之 1616-1692)도 30년을 인구 증가의 단위 기간으로 삼았으나 그 구체적인 증가율의 과정은 밝히지 않았다. 명말 청초 동아시아 사상가로서 가장 영향력이 컸으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황종희(黃宗羲 1610-1695)와 고염무(顧炎武 1613-1682)는 경제사상에서 전제의 개혁과 농업이외의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밝히는 등 큰 업적을 남기고 있으나 인구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급은 아직까지 천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나라 중기 홍량길(洪亮吉 1746-1804)은 인구에 대한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맬서스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근세 서양

중상주의 학파이론은 17세기와 18세기 중반까지 유럽 경제사상을 지배했으며 이들 학자들의 신사조 중 절대국가론은 특히 마키아벨리(1469-1527)와 보댕(Bodin 1530-1596)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대부분의 중상주의자들은 다수의 인구와 높은 인구 성장률의 장점을 강조하고 인구성장을 유인하는 방안으로서 혼인과 다 자녀를 장려하고, 공중보건 수준을 높이고, 외국으로 나가는 이민을 제한하고 숙련노동력의 이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 주장의 강도는 다양했다(Hutchinson, 1967: 18-19)

서양에서 16세기 후반부터 맬서스 이전까지 인구에 관한 비관적 견해는 많은 저작에 나타난다. Hutchinson은 최초의 선구자로서 보테로(Giovanni Botero, 1540-1617)를 들고 있다. 맬서스보다 200여 년 앞선 그의 주장은 맬서스의 주장 중 타당한 것들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다. 수도회인 예수회 회원이며 Borromeo 추기경의 비서였던 그는 그의 저서 『Delle cause della grandezza della città』 (1588)에서 인구수를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재생산 능력은 대단히 크지만 실제로는 생존수단의 한계로 제한된다고 했다. 즉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기근이나 역질과 같은 주기적인 재난에 의한 사망률의 증가로 제한이 가해진다는 것이다. 보테로는 잉여인구의 흡수방법으로는 식민지의 건설을 주장했다. 이처럼 그는 인구수의 딜레마를 지적하고 수적 힘의 장점과 다른 한편 많은 인구의 단점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되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헤일(Matthew Hale, 1609-1676)도 그의 저서 『The Principle of Origination of Mankind』 (1677)에서 보테로와 비슷한 추리를 전개하고 있다. 인간은 ‘기하급수적 비율’로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34년 또는 그 이내에 인구가 2배로 증가할 수 있다. 인간보다 하등동물들의 경우 번식력은 더 크지만 이들의 증가를 저지하는 세력이 더 크기 때문에 수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수적 증가도 이를 교정하거나 체크하는 힘 즉 역질이나 다른 요인에 의한 사망률에 의해 조절된다.

월러스(Robert Wallace, 1697-1771)는 인구수에 관한 논문 “Dissertation on the Numbers of Mankind” (1753)과 인간에 관한 다양한 예측 “Various Prospects of Mankind” (1761)에서 비관적 요인을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생식력에 대한 체크를 강조했다.

스튜어트 (James Steuart, 1712-1780)와 타운센트(Joseph Townsend,

1739-1812) 두 사람은 당시까지 정치경제학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구의 경제적 의의에 대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고전경제학의 선구자이며 동시에 인구의 경제적 연구의 선구자라고 부를 수 있다(Hutchinson, 1967: 136-139).

중상주의 학파의 이론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위해 나온 이론이 중농주의라 할 수 있다. 지드(Gide)와 리스트(Rist)로 대표되는 이들의 주장은 ‘자연의 질서’를 중시하고 생산에 있어 토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들은 공업부문보다는 농업부문을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부문으로 보고 전체 경제성장은 농업부문의 성장이란 전제하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중상주의 학자들이 국력과 국부의 증가를 위해 생활수준이 저하되더라도 인구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회의적이었던 데 비해 중농주의 학자들은 증가하는 인구만큼 농업생산이 따라갈 수만 있다면 인구성장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았다.

위와 같은 중농주의 학자들의 유보된 낙관론적 주장에 비해 가장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한 학파는 고드윈(Godwin)과 콩돌세(Condorcet)를 대표로 하는 계몽주의 학자들이다. 예컨대 고드윈은 과학을 신뢰하고 과학의 발달로 식량공급의 증가를 기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하루에 반시간씩만 일을 해도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풍요 속에서도 인간은 합리적이기에 성욕과 출산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인간사회의 과잉인구 현상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예상했다. 그가 문제시한 것은 사회제도에 의한 구조적 불평등이었다. 계몽주의를 집대성한 콩돌세는 과학의 발전과 인간의 완전성을 믿어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고 식량생산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되어 불합리한 인구성장 즉 과잉인구란 영원히 있을 수 없다는 극단적인 낙관론을 주장했다 (UN, 1973: 35-36).

3. 맬서스 이전까지의 종합 - 낙관론과 비관론

근세에 들어와 동아시아에서는 서광계와 왕부지 등이 장기간에 걸친 인구의 증가율에 대해 주목하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경험적 자료나 수리적 증명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에 반해 서양에서는 중상주의 학파와 계몽주의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낙관론자들과 중농주의와 기타 학파 학자들의 비관론이 현저하게 대립 발전하고 있었다.

먼저 낙관론자들의 주요 명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큰 인구 규모는 국력과 안보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군사적 팽창주의가 대두되는 사회에서는 인구규모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된다. 또한 계몽주의 학자들은 인간의 완전성을 확신하고 인구는 자율적으로 조정된다고 믿었다. 둘째, 생산이론상의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낙관론이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총인구수에 대한 총 생산량의 비 즉 생산성은 증가하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수확 체증 및 수확 불변의 기본적인 가정은 두 가지로서 첫째, 지구상의 자원은 무한하므로 노동력을 투입할 경우 최소한 투입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생산을 기대할 수 있으며, 둘째, 인구증가는 생산의 효율을 증가시킨다는 것으로서 이는 경쟁의 유발과 통신수단의 발달, 농업의 발전, 국제무역의 증진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Hutchinson, 1967: 108-109)

그러나 다른 한편 이와 같은 낙관론에 대한 유보적, 수정적 관점이 같은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학자들 간에 자주 등장한다. 첫 번째의 수정은 수확체증이나 수확 불변의 법칙은 자연자원 특히 토지의 경우 적용될 수 없으며, 다만 인구증가에 따른 고용의 증대와 토지의 확보가 가능할 때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인구의 수 못지않게 인구의 질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비관론적 견해는 맬서스 보다 200 여 년 전에 나타난다. 보테로에 의하면 인간의 생식력은 지대하므로 생존수단의 제한으로 인해 인구가 제한된다고 보고 생존을 위한 투쟁력의 증가나 사망률의 증가가 바로 조절요인이 된다고 했다. 그 후 헤일, 윌러스, 스튜어트, 타운센트 등으로 대표되는 비관론자적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인간의 잠재적 생식력이 크다는 점과 인간의 생존수단은 무한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 두 가지 즉 인간의 재생산은 생존수단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점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Hutchinson, 1967: 136-139).

V. 맬서스와 홍량길

1. 맬서스의 인구이론

맬서스(Thomas R. Malthus, 1766-1834)의 제1차 인구론은 1798년 익명으로 발표되었으며 앞서 소개한 당시 계몽주의 사조를 대표한 고드윈(Godwin, 1756-1836)과 콩돌세(Condorcet, 1743-1794)가 인간 이성의 완벽성과 사회진보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낙관주의에 반대하여 나온 것이다. 맬서스는 여기서 인간이 비참하게 되고 사회진보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생존수단에 비한 인간의 생식력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종의 삼단론법(三段論法)으로 전개

된 그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의 증가는 반드시 생존수단에 의해 제한이 가해진다.

둘째, 생존수단도 증가하지만 인구는 변함없이 계속 증가한다.

셋째, 인구의 월등한 증식력으로 인한 과잉인구 현상은 곤궁과 악덕에 의해 부양할 수 있는 수로 제한된다.

인구의 증식력이 생산수단의 증가를 앞선다는 전제는 이른바 수확체증 또는 수확불변의 법칙을 반대하고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과 비(산술급수와 기하급수)를 예시하고 있다. 최저생활 수준에 도달한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가 도처에서 밝히고 있는 이른바 소극적 규제와 적극적 규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원시사회에서 곤궁에 의한 약육강식은 적극적 규제로서 월등한 생식력을 규제한 것이며 이것은 목축 농업사회에서도 적용된다. 문명사회에 들어오면 초기에는 소극적 규제-비도덕과 악덕 등-가 적용되다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면 적극적 규제의 형태-즉 전쟁 등-가 작용하기 시작한다. 맬서스의 초판은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1803년 초판을 증보하여 제2판을 출판한다. 여기서 그는 규제(check)를 궁극적(ultimate)인 규제와 즉각적(immediate)인 규제로 나누고 궁극적인 규제는 인구증가와 식량증산과의 비가 다른데 따른 식량부족이라고 보고 이것은 기근이란 형태로 나타난다. 즉각적인 규제는 생산수단의 회소화에 따른 관습의 변화와 질병의 발생 등으로 도덕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다 포함하여 인간의 신체를 약화 또는 파괴하는 것이라 했다. 그는 즉각적인 규제를 다시 예방적인 규제와 적극적인 규제로 구분한다. 예방적인 규제는 자발적인 것이며 인간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특유한 것이다. 인간은 먼 장래에 나타날 결과까지를 예견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비도덕적인 규제(악덕 등)와 도덕적인 규제(혼인연기와 금육 등)가 모두 포함된다.

맬서스 이론은 본질적으로 인구와 생산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 이론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구가 증가하면 인당 생산량이 감소되는가의 문제; 둘째, 인당 생산량이 감소해도 인구는 계속 증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 셋째, 인당 생산량이 감소하면서도 인구가 증가할 경우 그 결과가 그의 예측과 같이 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첫 번째 논지는 그의 이론의 가장 취약한 점이자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점이다. 당시까지의 경험적 사실을 가지고 예시한 그의 급수에 관한 설명으로 모든 독자들에게 확신을 주기는 어려웠다. 두 번째 논지는 물론 첫째 논지가 받아들여질 때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그는 도덕적 억제라는 예방적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으

나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생활수준이 저하될 때까지 인구가 증가할 것을 확신했다. 세 번째의 주장 또한 앞의 두 주장이 수용될 때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는 과잉인구가 인간 비참의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 지역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악덕과 곤궁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존수단과 인구와의 비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만연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Flew, 1970; 31-34).

위의 세 가지 논지와 예견에 대한 비판과 경험적 불일치 현상은 오늘날 많은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예측이 빗나갔다는 것도 인정된다. 첫째, 수확 체감의 법칙은 대체자원이란 매우 복잡한 문제와 더불어 아직까지도 논쟁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둘째, 생활수준이 저하할 때까지 인구가 증가하리라는 예견이 빗나간 것은 많은 사회 특히 현대의 저 개발 국가에서의 자발적 출산 저하정책의 성공을 보면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빈곤은 과잉인구의 증거가 되고 많은 경우 과잉인구의 결과이긴 하지만 빈곤과 곤궁은 인류역사상 도처에서 발견되며 과잉인구 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 곳에서도 발견된다.

멜서스에 대한 비판은 그 후 수없이 많은 학파에서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그의 가장 큰 공헌은 아마도 당시까지 상품의 생산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주류 사조에 인간의 재생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특히 사변적 차원을 넘어선 학문적 차원에서 인구를 다루어 인구라는 변수가 생산함수 관계에서 독립변수의 지위를 갖게 했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인구라는 변수(인구의 증가나 감소)가 사회경제적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데 있다.

2. 洪亮吉의 人口理論 - 동아시아의 멜서스 선구자

서기 16세기 이후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시기를 거쳐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상적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이 이룩된데 비해 동양에서는 이에 비견될 큰 발전이 없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비록 과학적 발전은 서양에 비해 미약했으나 일부 사상적 발전은 서양을 앞선 것들이 자주 나온다. 대표적인 학자로서 홍량길을 들 수 있다. 홍량길(1746-1804)은 중국 江蘇省 사람으로 그의 인구에 대한 탁월한 업적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1920년대부터 중국학자들에 의해 소개되기 시작했다 (Ho, 1960). 그의 사상과 이론은 멜서스와 유사한 점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는 참으로 동아시아에서의 멜서스의 사상적 선구자라고 부를 만 하다. 그것은 그가 멜서스

(1766-1834) 보다 20년 먼저 태어났고, 맬서스가 인구론을 발표하기 전에 그의 사상이 발표됐으며 맬서스 인구이론이 논란을 일으켜 제2판이 나올 때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생물계에는 강약이 공존할 수 없고 소수가 다수를 당할 수 없다는 진화의 원리를 그의 천연론<天演論>에서 주장했다. 이것은 헉슬리(Thomas Huxley: 1825-1895)가 그의 진화론에서 약육강식론(弱肉強食論)과 우승열패론(優勝劣敗論)을 주장한 것과 매우 유사하며 헉슬리는 물론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의 진화론보다도 수십 년 앞서 발표된 것이다.

홍량길 인구사상의 주요 관점은 그의 의언<意言>이란 책의 치평(治平)과 생계(生計)란 두 편의 논문에 나타나 있다. <의언>은 1793년에 발표된 것으로 맬서스의 <인구론>보다 5년 전에 나왔다 (楊家駱, 1983: 33-34). 실제로 인구와 토지와의 관계, 인구와 재화(생산)와의 관계, 인구증가에 대한 개념 등은 홍량길 이전에 이미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으며 이것이 그에게 영향을 주었음은 의심할 바 없다. 또 그가 <의언>을 저술하기 이전 청대의 인구는 이미 3억 9천만 이란 최고봉에 도달해 있었다. 이것이 그의 인구사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당시 (乾隆 시대) 기록된 인구는 다음과 같다.

〈표 1〉 건륭시대의 인구

건륭 6년(1741),	143,410 천명
29년(1764),	205,590 천명
45년(1780),	227,554 천명
51년(1786),	391,102 천명
57년(1792),	374,600 천명

자료: 〈清代文獻通考 卷十九 戶口〉 및 〈續清代文獻通考 卷二十五〉

홍량길은 인구문제 분석의 단위를 戶로 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단위의 분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겠으나 그가 제시한 인구증가의 일반적 추세에 대한 결론과 이에 대한 보완조치는 맬서스의 결론과 정책적 보완책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이었다(陳金陵, 1995: 359-369).

호구증가에 관한 그의 예측은 다음과 같다 (의언; 치평 및 생계편).

물론 그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대한 주장은 정확하지는 못했다. “태평한 시대가 오래 계속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100년간 평가가 계속되면 오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호구는 30년에 5배가 되고, 60년에 10배가

된다. 100년이 지나면 20배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 증가한다.” 호구의 증식은 이처럼 빠르다. 그러면 주택(房屋)이나 토지(田地)의 경우는 어떨까? “한 집을 가지고 계산해 보자. 증조부시절 땅 1경에 방 10칸이 있었다고 하자. 당시 증조부와 증조모 두 사람에게 밭 1경, 방 10칸은 풍족한 것이었다. 그러나 증조부 내외가 아들 3, 딸 셋을 낳아 딸은 시집으로 내보내고 아들들을 결혼시켜 아내들을 맞으면 모두 8인이 된다. 이들이 다시 손자들을 낳아 손부(孫婦)들을 맞아들이면 모두 20-30인이 된다. 3-4대를 거치는 동안 처음 한 호가 10여호 이상으로 증가한다. 이와 같이 집과 전지는 큰 변화 없이도 호구는 부단히 증가한다.” 이에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몇 집은 쇠락(衰落)하기도 하겠으나 남정(男丁)이 번창하는 가족의 경우 4-5대 기간 중 더러는 3-5배, 많은 경우 20배가 된다. 이로써 전지와 가옥은 늘 부족하게 되고, 인구는 남게 된다. 더구나 한 가족이 많은 전지와 가옥을 겸병(獨佔)하면 도처에 거처 없고 굶는 이들이 많아지게 된다.”

그의 논거를 요약하면 호구는 100년간 5-10, 많은 경우 20배로 증가하지만 토지와 가옥(생활에 필요한 자원)의 증가는 기껏해야 3-5배밖에 증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체로 맬서스가 기하급수 및 산술급수의 대비를 가지고 예시한 것과 비교된다. 차이가 있다면 홍량길의 논지는 수적으로 덜 정확한 것이며 그 이유는 맬서스가 개인을 비교의 단위로 했음에 비해 그는 호(戶)를 단위로 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인구 조사의 단위를 호로 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홍량길은 이와 같은 관습을 따른 것이다. 과거 중국 왕조시대 정부의 인구통계를 보면 1911년 이전 모든 인구통계는 호수를 먼저 제시하고 다음 구수(口數)를 제시하고 있다. 호를 단위로 한 인구통계는 구를 단위로 한 것보다 인구수를 추계함에 있어 덜 정확하다. 예컨대 한 호 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그 호에 포함되어 실제 두호가 한호로 계산되는 등이 부정확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단위 면적 당 식량생산의 증가도 고려하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소비재의 대량생산을 맬서스도 예견하지 못한 것은 흥과 동일하다.

부분적이고 부정확한 자료 제시라 하더라도 인구와 생활 자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대안은 맬서스와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놀랍기 그지없다. 그는 천지조제법(天地調劑法)과 군상조제법(君相調劑法)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 자연적, 인위적 조절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천지조제법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천지에 법칙이 있는가? 그렇다. 수해 한발 및 역질

이 바로 천지의 조제법이다 (자연이 인구를 조절한다는 뜻). 그러나 백성 중 이런 폐해를 당하는 사람 (자연에 의해 규제되는 인구의 수)은 열명 중 한둘에 불과하다.” 이것은 맬서스의 적극적 규제에 해당되지만 맬서스처럼 잔인하지 않은 방법이었다. 홍량길 자신은 이 규제의 역할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어 군상조제법에 대해 홍량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군상엔 법칙이 있는가? 들에 휴경지가 없게 하고 남는 노동력 (잉여노동력)이 없게 하고 새로운 개간지를 마련하여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고, 과세를 단순하게 하여 이중과세를 없애고, 음탕하게 노는 것을 금하며, 토지의 겸병을 억제하고, 수해 한발 및 질병을 얻은 사람들에게 창고를 열어 구휼하는 것이 바로 군상의 법이다. 요컨대 태평시대가 오래 지속되면 세상에 인간이 많이 태어나게 되고 천지가 양인(養人) 가능한 인구수는 제한되어 있다. 또한 오랜 태평시대 후에 군상(君相)도 인간의 삶을 유지하게 해야 하는 바 군상의 양육가능 계수치도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조절법도 그가 보기에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이런 방법의 알맹이 즉 요체는 농업생산의 증가와 소비절약이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호구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경감시키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맬서스가 가구를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도덕적 억제>라는 수단으로 결혼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훨씬 미온적인 방법이다. 그는 위에 말한 두 가지 방법의 효과가 크지 못하여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우려된다고 했다.

홍량길은 절대적 인구과잉이나 상대적 인구과잉이란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위에서 말한 절대적 인구과잉뿐만 아니라 상대적 인구과잉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발표했다. 이것은 그가 물가상승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 나타난다.

“농업(農業)이나 공업(工業)은 자력으로 먹고사는 직업이다. 그러나 상고(商賈)는 나머지를 가지고 쉽게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사인(士人) 또한 하찮은 책을 가르치며 쉽게 사는 사람들이다. 농업을 제외하고 공인과 상인들 중 수입이 가장 적은 자라도 하루에 백전(百錢)을 남긴다. 글 가르치는 사인들도 백전은 벌고 있다. 이렇게 따지면 이들은 일년에 4만전의 수입을 갖는다. 듣자니 50여 년 전에는 쌀 한 되에 6-7전 포(布) 한 장(丈)에 30-40전이었다. 한사람이 쌀 4석(石)이면 굶주리지 않고, 포 5장이면 의가 족하다고 한다. 한 사람에게 쌀 4석 2,800전, 포 5장 200전 합하여 3,000전이 든다. 당시 한 사람이 10명을 부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못해 농사짓는 사람이 10배 늘었어도 전지는 늘지 않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보다 10배 늘었어도 재화는 늘지 않았다. 또한 선비들이 10배 늘었어도 서당의 수는 늘지 않았다. 이로 보면 수입은 줄었어

도 지출은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농민과 소시민들의 실질수입에 대한 홍양길의 분석은, 물가가 올라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생활수준이 저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점으로 보아, 명확했다. 이것은 당시까지의 경제이론 중 드물게 볼 수 있는 탁월한 견해였다. 그러나 그는 당시 물가의 상승이나 생활수준의 저하가 전부 인구증가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백은(白銀)등 재화가 대량 해외로 반출되어 동전 등의 가치가 등락한 점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의 관점은 부분적으로 부적합한 것이었다. 그는 사농공상(士農工商) 인수는 10배로 늘었으나 전지, 재화, 학교 등이 그만큼 증가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이어 호구가 10배로 늘어나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은 수한 역질을 만나 그냥 죽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심히 염려된다고 했다. 이것은 그가 실업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근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상대적 과잉인구를 논한 것이다. 그는 상대적 과잉인구를 비교적 간단하게 이해했기에 군상조제법에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일이 없는 자들(무업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토지경병을 억제하여 수많은 실업을 구제하고 예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陳金陵, 1995: 359).

홍양길의 인구사상은 청조의 사회 발전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북경에 도읍한 청 왕조의 통치 집단은 농민반란, 반청투쟁, 번왕(藩王)반란 등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 통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 먼저 민족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다음 황무지를 개간하고 부역을 경감 감면시키는 등 생산 증가 정책을 시행하여 오랜 기간의 안정된 통치를 도모하려 했다. 강희(康熙) 50(1712)년 인구증가를 장려하는 정책으로서 인구수의 증가에 의한 조세와 부역의 증가를 억제한(永不加賦) 정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옹정(雍正) 2(1724)년 과거 천 여 년 간 시행했던 인구증가에 비례하는 조세와 부역의무의 증가정책을 폐지한 결과 인구를 증가시킨 것이다. 옹정(雍正) 2-12년간 (1724-1733) 청조의 인구는 현저히 증가하여 매년 100여만 명 씩 증가하여 증가율이 1% 가까이 올랐다. 건륭(乾隆) 5년 (1740) 청나라 조정은 보갑문패법(保甲門牌法)을 제정하고 과거 16세 이상 남자인구인 정(丁)만을 대상으로 했던 불완전한 인구통계에서 탈피하여 전체인구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건륭 6년(1741) 중국의 전체 인구는 1억 4341만에 도달했으며 건륭 29년(1764)에는 2억 559만 까지 증가하여 건륭 13년 (1748년) ‘호구번식’이 빈곤의 원인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런 당시의 배경 하에서 흥은 인구문제를 좀 더 예리하게 분석하게 된 것이다.

홍양길의 인구론은 그의 사회사관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그의 인구학과 사회학에 대한 큰 공헌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보여주지 못했던 관점을 제시한 점에서 그의 공헌은 특기할 만 한 것이었으나 그의 저술 당시까지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26년 장음린(張蔭麟)이 그의 인구이론을 《東方雜誌》에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개탄하고 있다. “나는 홍씨가 남긴 글을 읽고 그 불행한 점과 다행한 점을 느끼고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 불행한 점이란 홍씨 같은 이론이 양계초의 명저 『清代學術概論』과 『中國近代三百年學術史』에서 모두 빠뜨리고 있다는 점이며, 다행한 점은 과거학자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이론이나 사상을 찾아 밝힐 수 있었다는 점이다.” 장은 또한 겸손하게 “내가 선현의 업적을 표창할 자격이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현들의 업적을 앞선 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소홀히 한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일 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3. 비교 - 공통점과 차이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홍량길의 인구사상은 청조의 사회 발전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으며, 맬서스의 이론적 전개도 당시 급격한 인구증가와 중상주의와 계몽주의 학자들의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기 위해 나왔다.

두 학자의 공통점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그 증가율은 계속 된다는 것이다. 다만 홍량길의 인구 증가에 대한 수리적 주장은 정확하지 못했다. 홍량길의 서술방식은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통용되는 서술방식을 이용했으나 맬서스는 기하급수 및 산술급수를 대비하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이것을 입증하려했다는 점이다. 홍량길의 논지가 수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데에는 집계의 단위를 맬서스는 자연인구수로 했는데 반해 그는 호(戶)를 단위로 했다는 점이다. 호를 단위로 한 인구통계는 구(口)를 단위로 한 것보다 인구수를 추계함에 있어 덜 정확하다. 예컨대 한 호 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그 호에 포함되어 실제 두호가 한호로 계산되는 등의 오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단위 면적 당 식량생산의 증가와 인당 생산성의 향상을 고려하지 못한 점도 유사하다. 즉 수확 체감의 법칙을 주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소비재의 대량 생산을 예견하지 못한 것은 맬서스와 동일하다.

부분적이고 부정확한 자료를 제시했다 하더라도 인구와 생계 자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에 대비한 대안은 홍량길과 맬서스의 이론은 매우 유사하다. 그의 천지조제법(天地調劑法)과 군상조제법(君相調劑法)이라고 부르는 두 가

지 자연적 및 인위적 조절 방법은 맬서스의 적극적 규제 및 소극적 규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수해 한발 및 역질이 바로 자연이 인구를 조절하는 천지조제법이다. 이것은 맬서스의 적극적 규제에 해당되지만 맬서스처럼 잔인하지 않은 결과를 예상한 것이었다. 그러나 백성 중 이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열명 중 한둘에 불과하다 하여 홍량길은 이 규제의 역할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

홍량길의 군상조제법은 들에 휴경지가 없게 하고 남는 노동력이 없게 하고 새로운 개간지를 마련하여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고, 수해 한발 및 질병을 얻은 사람들에게 창고를 열어 구휼하는 것을 말한다. 즉 태평시대가 오래 지속되면 세상에 인간이 많이 태어나게 되고 천지가 養人 가능한 인구수는 제한되어 있기에 군상의 양육가능 계수치도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한다 하여 이와 같은 조절법도 그가 보기에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군상제조법 즉 인위적 조절의 요체는 농업생산의 증가와 소비절약이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호구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경감시키자는 것이다. 이것은 맬서스가 가구를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도덕적 억제>라는 수단으로 결혼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훨씬 미온적인 방법이다. 그는 위에 말한 두 가지 방법의 효과가 크지 못하여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우려된다고 했다.

위와 같은 홍량길의 분석방법은 맬서스의 분석과 매우 흡사하다. 다만 서술방식이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통용되는 것을 이용한 점만이 다르다. 맬서스와 홍량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맬서스는 인구과잉 자체는 자연적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어떤 사회경제적 개혁을 위한 이론적 무기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본데 반해 홍은 중하층 인구를 중심으로 스스로 개선방법을 고안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 점이다. 그러나 홍량길도 이와 같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비관적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시 맬서스와 유사해 진다.

마지막으로 홍량길은 절대적 인구과잉이나 상대적 인구과잉이란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가 농민과 소시민의 실질수입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서 나타난다. 그는 물가가 올라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생활수준이 저하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까지의 경제이론 중 드물게 볼 수 있는 탁월한 견해였다. 그러나 그는 당시 물가의 상승이나 생활수준의 저하가 전부 인구증가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백은(白銀)등 재화가 대량 해외로 반출되어 동전 등의 가치가 등락한 점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의 관점은 부분적으로 타당한 것이었다. 그는 이어 호구가 10배로 늘어나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이 수한(水旱)이나 역질을 만나면

그냥 죽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심히 염려된다고 했다. 이것은 그가 실업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근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상대적 과잉인구를 논한 것이다. 그는 상대적 과잉인구를 비교적 간단하게 이해했기에 군상조제법에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일이 없는 자들(무업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토지점병을 억제하여 수많은 실업을 구제하고 예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陳金陵, 1995; 359).

VI. 평가 및 결론

인구에 관한 사상은 장기간을 놓고 보면 시계추와 같아 한때는 과소 인구와 낮은 증가율을 걱정하다가 다른 시기에는 같은 지역에서 과잉인구와 높은 증가율을 염려한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수천 년 간 인구사상은 매우 순환론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와 로마문명에 기초한 서구의 학문이 오늘날의 세계 학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결과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포함하는 아랍세계의 찬란한 학문적 업적과, 인도 대륙의 심오한 사상,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탁월한 사상적 발전에 의한 학문적 업적이 등한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근세시기 맬서스 보다 20년 앞서 출생한 중국의 홍양길(洪亮吉, 1746-1804)의 사상을 맬서스와 비교하는데 큰 비중을 두었다. 홍양길은 20세기 중반부터 중국학자들에 의해 구미에 소개되었으나 그 내용은 인구학적 관점에서가 아닌 경제학 특히 고전경제학적 관점에서 소개된 것이었으나 여기서는 인구학적 관점에서 그의 업적을 맬서스와 비교했다.

고대, 중세, 근세로 나누어 인구사상의 발전과정의 분석하고 종합한 것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 동아시아의 춘추시대는 고대 그리스시기와 더불어 비교적 이성(理性)을 중시한 시대였다. 당시 인구규모나 증가 혹은 분포에 대한 관점들은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그리스시기의 시민사회의 형성은 역사상 초기 민주주의 형태를 갖춘 시기였으며 춘추시대의 제자백가의 찬란한 학문적 발전도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한 보편적 연구를 토대로 이룩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의 이성이나 보편적 특성을 중시했던 시기와 달리 전국시대와 로마시기로 이행하면서 유토피아(utopia) 사회에서 주장되고 수용되었던

인구에 관한 관점은 설 땅을 잃게 되고 무력이 지배하는 비이성적인 사회의 냉엄하고 무자비한 관점과 정책이 시행된다.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과잉 인구에 대한 우려가 자주 나온다. 가장 시기적으로 앞선 노자와 유학을 대표하는 공자와 맹자는 인구와 환경(자원)과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었다. 목자는 인구증가와 감소에 대한 방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의 과잉인구론은 이미 춘추전국시대에 그 기초가 이룩된 것이다. 특히 상앙, 관자, 한비, 서간 등 전국시대와 한시대의 학자들은 과잉인구에 대한 단점을 깊이 천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세: 천년이란 장기간의 중세를 통해 동서양에서 모두 지배적이었던 사상은 상식이 된 것으로서 인구는 노동력이며 동시에 군사력이기에 국력 그 자체라고 본 것이다. 이런 인식은 역사시기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된 관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구에 관한 문제제기는 국가에 따라 그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상황적 제약에 반응하고 있었다. 전쟁의 위협 아래서는 수적 우세를 바람직하게 보았으며, 생활필수품이 부족한 시기에는 소비자가 적기를 바랐다.

근세: 서구에서 르네상스라 일컫는 15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의 3백년간은 인류역사상 짧은 시기에 불과하나 크나큰 변혁을 겪은 시기였다. 민족국가의 출현, 과학적 발명과 신대륙의 발견, 점진적인 봉건제도의 해체, 초기자본주의의 발달과 무역의 신장 등 산업혁명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인구에 대한 사상도 다양하게 되고 수많은 관점을 통한 전례 없는 학문적 발전을 보여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학문발전은 매우 부진했다. 서양에서는 맬서스 이전까지 셀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인구에 대해 논의를 전개한 데 비해 동아시아에서는 홍량길 이전까지는 3-4명의 학자만이 인구에 관해 직접적인 논의를 했을 뿐이다.

홍량길의 분석방법은 맬서스의 분석과 매우 흡사하다. 다만 서술방식이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통용되는 것을 이용한 점만이 다르다. 즉 경험적 자료의 제시와 논지를 증명하기 위한 수학적 방법의 원용에 있어 홍은 맬서스에 비해 부족했다. 맬서스는 인구과잉 자체는 자연적 규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어떤 사회경제적 개혁을 위한 이론적 무기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본데 반해 홍은 중하층 인구를 중심으로 스스로 개선방법을 고안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 점이다. 그러나 홍량길도 이와 같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비관적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시 맬서스와 유사해진다. 특히 홍이 상대적 인구과잉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음은 그의 탁월한 점이라 하겠다.

이처럼 홍량길과 같은 탁월한 학자도 있었으나 현대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보

면 동아시아에서의 이 기간 학문 발전은 서양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진했다. 근대에 들어와 과학적 지식이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 지식에 관한 한 유럽을 포함한 서양의 업적이 동양에 비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중세 이전까지 중국을 포함한 동양에서의 과학적 지식이 서양을 능가했다는 점에서도, 화약이나, 종이, 활자 등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역사적 기록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왜 동양에서 근세에 들어와 과학적 지식의 축적과 발전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

이에 대해 혹자는 정치경제 제도적인 문제로, 혹자는 사회 문화적인 문제로, 또 다른 편에서는 근대 국제 환경상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학문내적 요인과 학문외적 요인 중 몇 가지 문제만을 가지고 설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문 목표상의 차이: 동양 특히 고대 중국의 과학적 창조와 발명은 실용에 편중되어 있었다. 동아시아의 과학기술 발전 유형은 경험형 성과가 대부분이었음에 비해 근대 서양 과학은 그리스와 라틴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어 인간의 이성을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삼아 ‘지식을 위한 지식’ 자체가 학문의 목표가 되고 진리자체의 추구가 학자들의 연구 목표였다. 둘째, 과학의 독립 여부: 전통 사상의 영향을 받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상가들은 음양(陰陽) 오행사상으로 모든 현상을 분석하고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오행사상으로 해석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주관적 억측이나 신비주의로 귀결되기 쉽다. 이에 비해 서방의 근대 과학자들은 준거의 기준이 명확한 중량, 질량 등 지시자가 확실한 술어들을 사용하여 나름대로의 기초를 쌓아 자신들의 연구 분야를 확립하고 과학으로서의 필수 조건을 구비하게 했다.

셋째, 논리성(論理性)에서의 차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양 고대 과학자들은 실용성을 중시한 나머지 논리학적 발전을 위축시켰다. 따라서 명가학설(名家學說 -목자, 공손룡 등)이나 주로 불교에서 논의된 (因果論) 등을 증명하지 못했다. 그 결과 공리(公理) 체계의 업적이 나오지 못했다. 서방에서의 근대과학 발전에는 순수논리학과 형식논리학의 발전이 선행했으며 이들은 모두 고대 그리스에서의 유클리드 기하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논리학 연구성과를 원용하여 개념, 정리(定理), 이론 등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整理)가 가능했다.

넷째, 量化 정도상의 차이: 동양 고대과학을 통털어 보면 양적인 표시를 위한 수학적 도구의 사용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특히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산공식이 없고 대부분 규칙성이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에도 그 성격을 묘사하여 서술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비해 서양에서는 그리스시대의 수학자인 알키메데스, 피타고라스 등의 업적과 전통을 이어 받아 수학적 연구가 발전

하고 근대에 이르러 더욱 더 빛나는 업적을 이룩해 규칙적 현상에 대한 계산공식을 만들어 표현하는 현상이 과학적 연구에 보편화 되었다.

다음 동양에서의 과학적 발전을 저해한 학문외적 원인을 중국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蔡方鹿 등, 1993: 175-177).

첫째, 공업적 자극과 과학기술 정책의 부재: 근세 서양의 국가 흥성의 역사를 훑어보면 모든 국가가 과학기술 장려정책을 시행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국민들에게 과학 지식의 교육과 과학연구를 장려하고 이를 국가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중국의 역대왕조는 소위 중본억말(重本抑末) - 근본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엽적인 것을 경시하는 - 정책을 시행하여 자연히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그나마 민간에서의 연구조차 이용하지 못했다.

둘째, 귀사천공(貴士賤工)적 문화적 분위기: 중국은 예로부터 詩文을 가지고 벼슬자리를 했고 육체노동을 천시하고 선비적 文風을 높이 평가했다. 그 결과 기술지식은 천대받고 이 현상은 수당(隋唐)이래 실시된 과거제도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셋째, 제국주의의 침략: 중국 내부에서의 제약 요소도 많았으나 아편전쟁 이후에는 각 열강들이 중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식민지화하여 통치했으며 이것이 중국에서 근대과학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것을 저해한 가장 큰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참고문헌

- 朴商台 (1986), “人口思想의 發展,” 韓相福 權泰煥 편, 《經濟人口學》, 서울대학교 출판부, 17-40.
- 朴商台 (1984), “實學에 나타난 人口思想,”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國社會와 思想》, 105-144.
- 楊家駱 主編 (1983), 《洪北江詩文集 上, 中國學術名著第六集, 第二十一冊》, 臺北, 世界書局. 國 七十二年.
- 張基權 (1970), 《論語》, 서울, 明文堂.
- 陳金陵 (1995), 《洪亮吉評傳》,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車柱環 (1970), 《孟子》, 서울, 明文堂.

蔡方鹿等 (1993), “近代科學何以沒有在中國產成?” 《中國文化與中國社會》, 成都出版社, 175-177..

崔珍皙 (2001), 《도덕경》, 소나무.

胡寄窓 (1998), 《中國經濟思想史導論》, 五南圖書出版有限公司, 中華民國 87年.

侯外廬 主編 (1955), 《中國思想通史》, 北京.

Flew, Anthony J. (ed.) (1970). *Malthus: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New York: Penguin Books.

Ho, Ping-ti (1959). *Studies on the Population of China, 1368-1953*,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Hutchinson, Edward P. (1967). *The Population Debate*, Boston, Houghton Mifflin Co.

Rosenthal, Erwin J. (1962). *Political Thought in Medieval Islam*,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uvy, Alfred (1978). “Population Theorie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s*, 12: 349-358.

United Nations (1973)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Population Trends*, New York, United Nations.